

# 포털 사이트 호남 비방 글 난무 방관 못 할 수준…“대책 세워야”

새 정부 출범 후 급증…지역감정·색깔론 자극 도 넘어

최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광주·전남지역 시·도민을 외국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도를 넘고 있어 지역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론 게시판에 주제와 관련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색깔론을 내세운 글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을 비롯한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시민단체 홈페이지

지 등에는 광주·전남 시·도민을 이른 바 ‘좌의 빨갱이’로 치부하며 반정부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악의적인 게시글로 가득했다.

다음의 토론사이트인 아고라에 설치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비판’, 국민은 투표 기계인가’라는 제목의 자유토론방에 ‘좌빨, 전라디언’, ‘조상 무시하는 전라도 × 농부’, 전라디언이 10년 전하의 단맛을 특별히 누린 듯 싶다’, ‘심한 욕설을 하는 것 보니 호남 사람’, ‘전라도 좌빨은 이지’

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등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도배돼 있다.

토론 주제와 무관하게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무조건 좌익세력으로 몰고, 또 이를 세력은 곧 호남인들이라는 주장이 판을 치고 있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인 한국진보연대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엔 ‘촛불시위 주동자는 호남향우회 모임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

다.

자신은 ‘당첨’이라고 밝힌 네이버에는 ‘촛불시위 주동자는 전라인이다. 호남인들은 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인들이 타 지역민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광주·전남출신 언론인과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의 이름과 직책을 함께 올려놨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광주·전남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난무하자 시민들은 지역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R씨는 “최근 우리 지역에 대한 하위 및 비방글이 인터넷에서 무수히 나돌고 있다”며 “지역민으로서 저자히 참을 수 없고,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지역민들의 입장과 이해하면서도 매우 난감해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나설 경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 사회학과 박래광 교수는 “광주를 소외·좌빨로 칭하는 것은 본 고장으로 바라보는 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견이 인터넷 상에서 표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강압적인 수단이나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근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에는 광주·전남 지역민을 별다른 이유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넘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빚 고민’ 30·40대 가장 자살 잇따라

사업 실패 후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40대 가족이 숨지는 등 빚에 시달리던 가족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달 23일 광주 서구 광천동에 사는 B(45)씨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 K(41)씨가 발견해 광주 도병원으로 옮겼으나 13일 만인 6일 숨졌다.

B씨는 10여 년 전 사업 실패로 수천 만원의 빚을 진 뒤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해 왔었다. 또 최근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으나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힘들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숨지기 직전 “먼저 가서 미안하다. 편히 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크기의 유서 2장을 남겼다. 경찰은 B씨가 최근 “빚 문제로 고민해왔다”는 가족들에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로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3시40분께 서구 쌍촌동에 사는 L(34)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내(3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L씨가 최근 사업 실패에 따른 빚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신변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김재균 의원 부인 징역 4년 구형

광주시 북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유서 2장을 남겼다. 경찰은 B씨가 최근 “빚 문제로 고민해왔다”는 가족들에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로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최운조(64) 북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보(여·68)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주씨는 지난해 7월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남편 김 의원에게 부탁해 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의장으로부터 8천만원, 김 의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생계침해범죄 집중 단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현)은 7일 광주 시 서구 농성동 청사 3층에서 ‘생계침해 범죄 대책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전남경찰청은 이날부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계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락실 ‘뇌물피담’ 광주경찰 ‘뒤승승’

광주경찰이 연초부터 유례없이 뒤승승하다.

불법 영업 목인 등 사행성 오락실을 비호해준 경찰 간부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되면서 특정 직

“○○도 연루됐다”

“뇌물 장부 있다”

소문 확산 ‘진땀’

원과 해당 업주와의 연루설 등 각종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광주 일선 경찰에 따르면 각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과 ○○과 광주지검 특수부의 전화를 받고 출두할 예정이다.’ ‘○○가, 업주와 연루돼 있다.’ 경찰청 본청에서 감찰팀이 떠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직원들

의 업무 및 출·퇴근길이 무거워지고 있다.

이 소문은 지난 6일 광주지검에서 ‘사행성 오락실 업주 뇌물 장부’를 입수했다는 소문이 경찰에 퍼지면서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락실과 관련된 소문은 경찰의 또 다른 비리 소문을 양산하는 형국 마자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일부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각종 괴수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에 대한 감찰 스크립트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락실 업주와 연루된 직원들은 없다”면서 “발본색원의 의지로 내부 및 외부 감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자신이 맡은 공사장 자재 훔쳐 팔아

○…자신이 맡은 원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훔친 뒤 이를 팔아 돈을 챙긴 40대 인테리어 업자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덮였다.

○…광주동부경찰은 7일 원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훔친 남모(49)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8월 중순 광주시 동구 계립동 이모(여·51)씨의 원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시가 60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1t(1kg당 6천원)을 자신의 1t 화물 트럭에싣고 고물상에 팔아넘겼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씨의 원룸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남씨는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을 시켜 지하에 있던 동파이프를 자신의 화물차로 옮겼는데, 경찰은 준공검사 과정에서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이씨의 신고로 남씨를 검거.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광주지검, ‘오락실 뇌물’ 경찰 4명 영장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쟁기 혐의로 광주 서부 경찰서 현직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이성윤 부장검사)는 7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부인 주모(56)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운조(64) 북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보(여·68)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주씨는 지난해 7월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남편 김 의원에게 부탁해 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의장으로부터 8천만원, 김 의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단속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적개는 1천만에서 많게는 4천만원 까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 뇌물 액수는 1억2천6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김 경정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천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고급 골프채를 받은 등 4천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쟁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경감 등 3명이 사행성 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돈을 받았고, 이들에 대한 지휘 책임자인 김 경정도 직접 돈을 받거나 부하 직원들로부터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오락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봉/선/동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돌잔치,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100석룸, 50석×2룸 완비)

아이엘리시아 고객 입장은 요리하는 우리를 항상 긴장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요리를 먹을줄 아는 미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서비스로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튼튼한 향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 회원카드 혜택

■아이엘리시아 회원 가입 즉시 1,000포인트 자동 지급 & 10% 할인  
자세한 사항은 www.elysia.com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

### 이용 시간

### 평 일

### 주말(공휴일)

### 면적

### 인원

### 가격

### 기타

### 면적

### 인원

### 가격

### 기타